

##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수법활용

윤 봉 식

우리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아동문학의 다양한 여러 형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어린이들에게 새것에 대한 지향과 앞날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며 그들을 선군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동화극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아동극의 한 형태로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우에 등장하여 동화적인 이야기거리를 엮어나가는 극예술의 한 형태이다.

동화극은 무대형상을 통하여 환상적이고 과장된 생활을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어린이들의 심리적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동화극문학은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정서에 맞는 아동문학의 한 형태로서 이전시기부터 수많이 창작되어왔으며 설맞이공연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동화극으로 창조되어 공연되어오는 과정에 어린이들의 사상정서교양에서 그 생활력이 뚜렷하여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 학생소년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우리 학생소년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재미있는 동화극문학을 창작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린이들의 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동화극을 더 많이 훌륭하게 만들어내자면 동화극의 사상에술적기초인 동화극문학을 그 형태적특성에 맞게 창작하는것이 선차적문제로 나선다.

동화극의 사상에술적기초인 동화극문학을 동심에 맞게 창작하려면 동화극문학창작의 대표적인형상수법의 하나인 환상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형상수단과 수법들에 정통하고있을 때에만 그것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마음대로 충분히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 식의 투를 가지게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38페이지)

동화극문학이 동화적인 내용을 담고있다고 하여 동화창작의 형상수단과 수법들이 극문학창작에 그대로 활용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화극문학을 창작함에 있어서 형상수법들의 활용 특히 환상수법을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수법은 무엇보다먼저 동화적환상의 요소들에 강한 극성이 내포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동화적환상의 형상적요소들에는 환상적인 인물과 사건, 정황 등이 있다. 이 형상요소들이 강한 극성을 안고있도록 한다는것은 환상적인물인 경우에도 현실적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극적으로 엮힌 인물로, 환상적인 사건 역시 극성으로 충만된 사건으로, 환상적인 정황 역시 환상의 견인력과 진폭을 최대로 높여주는 극적인 정황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

미한다.

동화적환상의 요소들이 강한 극성을 안고있도록 하자면 우선 동화극문학에서 형상되는 환상적인 인물과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치밀하게 엮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실례로 동화극문학 《열두달의 집》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한해동안 학습과 생활을 잘 하지 않고도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용이와 그의 동생 철이의 생활을 목은해할아버지가 열두달을 차례로 불러들여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환상적인 인물인 목은해할아버지는 환상의 세계를 펼쳐주고 현실적인 인물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라 환상의 세계속에서 학생의 기본임무인 학습을 잘 하지 않고있는 어린 주인공들의 결함을 깨우쳐주며 일년 열두달을 5점자랑이 가득찬 웃음의 집, 기쁨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주제해명에서 없어서는 안될 극적인 인물로 설정되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이 작품에서처럼 환상적인물이 현실적인물과 잠간 만나 환상의 세계를 펼쳐주는 제시자적인 역할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기본문제, 주인공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현실적인물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관계를 맺고 사건발전의 전과정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형상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화극문학이 환상의 세계를 자기의 주관적의도에 의해 자유분방하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펼쳐보이는 동화와 다른 고유한 무대적성격을 띠기때문이다.

동화극문학은 무대형상을 통해 재창조될것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동화적세계를 라렬하거나 평면적으로 보여줄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몇개의 장면들에서 짧은 시간내에 관중과의 직접적교감속에 극적인 생활화폭으로 동화극적환상의 세계가 펼쳐져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대우에 등장하는 얼마 안되는 인물들의 관계는 한결같이 주인공을 중심에 놓고 극적으로 심오하게 엮힌 관계로 되어야 한다. 여기로부터 동화적환상세계를 펼쳐주는 환상적인물도 례외로 될수 없다.

동화적환상세계속에서 나오는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 인물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사이의 관계가 관중들에게 진실하게 안겨오도록 형상하는것이다.

동화적환상자체가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거기로부터 맺어지는 인물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면 어린 관중들로 하여금 환상 그자체를 믿을수 없게 하는것으로 하여 보여주자는 사상적내용을 제대로 전달할수 없게 된다.

환상적인 인물과 현실적인 인물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극적으로 엮어주자면 그들의 관계가 극적으로 될수 있는 물질적수단들을 적극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환상세계를 펼치는데 이바지하는 물질적수단으로는 동화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리용하는 여러가지 로동 및 물질적생활도구들이다. 이러한 물질적수단들은 환상세계에서만 존재하며 그 세계에서 동화적인물이 리용할 때에만 커다란 생명력을 나타낼수 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계기와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물질적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하며 거기에 무제한한 힘과 신비성을 부여할수 있다. 환상세계를 펼치는 물질적수단이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인 극적관계로 맺어질수 있는 매개물로 되지 않는다면 환상적인 동화극적형상을 창조할수 없게 된다.

동화극문학 《다시 찾은 시간》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인물인 시간할아버지와 영진이, 혁철이를 비롯한 현실적인물들의 관계에서 환상세계를 펼치는 물질적수단은 세상아이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텔레비존이다. 이것을 통하여 공부시간에 장난에 눈을 팔며 아까운 시간을 잃고있는 영진이, 혁철이와 시간할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며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강통을 차고 길거리에서 헤매이는 남조선어린이들과의 관계도 맺어지게 된다.

동화극문학창조에서 쓰이는 물질적수단들은 환상세계를 펼쳐보이는데 이바지하는 바탕으로 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생활에 가깝고 그들의 미학정서적요구와 생활론리에도 맞는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동화극문학에서 쓰이는 물질적수단은 일부 동화들에서 쓰이는 수단들이 갖추어야 할 요구와 함께 환상적인 인물과 현실적인물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고 극적인 관계로 만들수 있도록 탐구되어야 한다.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간의 관계를 극적인 관계로 엮어주자면 또한 그들사이의 호상관계가 맺어질수 있는 극적계기를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

동화극문학 《열두달의 집》에서 용이와 철이는 한해가 다 끝날 시간을 몇분 남겨두고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반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있으나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생활적인 계기속에서 지나간 나날들을 펼쳐 그들의 생활을 보여줄수 있는 묵은해할아버지와 열두달형제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것이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적요소들이 강한 극성을 안고있도록 하자면 또한 환상적사건과 정황도 작품의 극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것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아동극에서의 사건과 정황은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을 깨뜨리고 어린이들의 예상을 뒤집을수 있는 충분한 전제로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신기한 장수샘물 한바가지로 늙은이도 순간에 새파란 젊은이로 만들고 텔레비존화면으로 온 세상아이들을 다 살펴보며 그들이 잃어버리는 시간을 모아들이는 신비로운 사건들은 현실생활에서 볼수 없는 충격적이며 극적인것들이다.

동화극문학은 동화적인 내용을 극적묘사방식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동화에서보다 극성이 강한 환상적인 사건과 정황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러한 환상적인 사건과 정황이 강한 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작품의 기본이야기속에서 극적위기를 부단히 조성하고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어나가면서 작품의 견인력을 한층 높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실례로 동화극문학 《선사받은 뿔피리》에서는 꽃동산에서 만든 새로운 화살을 없애버리려는 승냥이와 박쥐놈의 흥계를 짓부셔버리는 사건이 흥미있게 설정되어있다. 거지로 가장한 박쥐놈으로부터 받은 뿔피리를 보초병의 자각을 잊어버린 곱슬이가 불자 그속에서 이상한 옷차림을 한 요정들이 나와 날라리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돌아가면서 그에게 술을 먹인다. 그만에야 곱슬이가 뿔아떨어지자 흉악한 승냥이놈이 나타나 신기한 화살을 버리어내는 야장간에 불을 놓는다. 그러다가 이상한 노래소리를 듣고 나온 곱슬이의 동생에 의해 저지당하자 그를 칼로 찌른다. 그리고 다시 야장간에 성냥가치만 갖다대면 불이 일어나는 불길선을 늘인다. 곱슬이는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나 묶이운 몸이다보니 어쩔수 없었다. 이때 곱슬이의 동생이 희생적으로 비상종을 울려 동산의 짐승들에게 알린다.

보는바와 같이 신기한 뿔피리에서 흘러나와 춤추는 요정들에 의하여 야장간의 보초인 곱슬이가 잠들어버리는 환상적인 사건은 동산의 전체 짐승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극

적위기로 되며 이것을 통하여 박쥐를 어리숙한 거지로만 생각하던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고 그놈이 동산의 생명인 야장간을 노리는 나쁜놈이라는 명백한 성격적표상을 주고있다.

환상적사건과 정황을 극적으로 조성하는데서 류의할 점은 극적위기 그자체만을 사건적으로 추구한다면 사건위주의 극을 꾸미는 편향으로 떨어질수 있다는것이다. 극적위기를 조성하는 사건은 어디까지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에 이바지하는 극적계기로 될 때만이 형상적의의를 가진다. 사건자체가 아무리 흥미있는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격형상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극의 진실한 흐름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상적인 정황이 성숙되어야 성격의 본질이 드러나는 극적계기가 무르익게 되며 사건도 더욱 긴장성을 띠고 발전하여나가게 된다.

환상적인 정황은 동화극의 환상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계기이며 조건이다. 환상적인 정황은 전개되는 동화극적사건과 인물들의 호상관계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동화극적사건과 인물, 그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상적정황이 어떤가에 따라 환상의 극적견인력과 진폭이 크게 나타날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수도 있다.

동화극문학에서 조성되는 환상적인 정황은 항상 극적기대감과 흥미를 가지도록 긴박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동화극문학 《녹슬었던 칼》에서 극적인 정황은 너구리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다. 이 정황은 평시에 경각성없이 살아온 사향노루에 의해 조성된것이다. 이리놈의 칼에 너구리가 쓰러져도 것처럼 위용을 뽐내던 사향노루의 그 칼은 뽑혀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평시에 늘 동산을 제 혼자 지킨다고 우쭐대던 사향노루는 제 한목숨도 건지지 못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환상적정황은 단순히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동화적인 흐름에 맞으면서도 성격의 본질이 드러나고 사건이 더욱더 긴장성을 띠고 발전하게 하는 극적인 계기로 되어야 한다. 환상적정황을 타당한 생활계기에 맞게 설정하자면 환상적정황이 생길수 있는 동화적이야기를 잘 엮어주어야 한다.

동화극문학 《녹슬었던 칼》에서 보는것처럼 사향노루의 칼이 뽑혀지지 않는 환상적인 정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것은 신기한 칼만 믿으면서 훈련도 잘하지 않고 동무들의 비판도 귀담아듣지 않던 사향노루의 생활을 앞에서 잘 엮어주었기때문이다.

동화극문학에서 환상적인 정황이 작품의 견인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여 람발하면 환상의 진실성과 극적견인력을 잃어버리게 되며 어린 독자들은 오히려 극적인 기대감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야기의 복잡한 흐름속에서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할수 없게 된다.

환상적인물과 사건, 정황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어야 한다. 환상적인 정황이 조성되지 못하면 환상적인 사건이 있을수 없으며 환상적인 사건은 또한 환상적인물의 행동이 없이 전개될수 없다. 환상적인 정황이 극적인 정황으로 제시될수록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간의 관계도 더욱 극적으로 심화되며 환상적인 사건도 역시 놀라운 사상정서적충격을 주는 극적인 사건으로 전개될수 있다.

환상적인물과 사건, 정황은 생활론리의 진실성과 그 련계의 충분한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환상적인 정황은 조성되지 않았는데 환상적인물을 등장시키거나 환상적인 사건을 펼쳐놓는다면 환상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한편 환상적인 정황

은 비상하고 극적인 인물관계나 사건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상적인 인물과 사건을 준다면 기형적인것으로 되고만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수법은 다음으로 이야기줄거리조직과 성격형상, 대사형상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전과정에 일관하게 작용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형상의 전과정에 환상의 수법이 일관하게 작용되도록 활용하자면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환상적인 장소나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설정하여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상적인 장소와 환경은 어린이들에게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그들을 작품의 세계에 끌어들인 데서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동화극문학 《다시 찾은 시간》, 《잠을 깨요》, 《하늘나라의 새 손님》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는 환상적인 장소와 환경설정으로 이야기를 흥미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동화극문학 《다시 찾은 시간》에서는 현실생활에서는 볼수 없는 《시간의 집》이라는 환상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펼치고있다. 《시간의 집》은 공부를 잘하지 않은 학생들이 놓쳐버린 시간과 지식을 모아놓는 집이다. 이런 환상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시작부터 어린 독자들에게 강한 극적인 기대와 흥미를 불러일으킬수 있다. 장소와 환경을 임의로 변경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동화와는 달리 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정시킬것을 요구하는 동화극문학에서는 어린이들의 엉뚱한 심리에 맞는 장소와 환경을 설정하는 문제가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동화극문학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는 환상의 수법으로 이야기를 함축성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무대우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이해할수 있도록 하자면 극적인 이야기를 함축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동화극문학 《꿀꿀이의 호박농사》에서는 공부는 실속있게 하지 않고 남의 본만 따르다가 호박농사를 망치는 꿀꿀이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꿀꿀이가 호박을 가꾸는 과정과 토끼가 해바라기를 키우는 전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고 토끼와 꿀꿀이의 대사로서 설명하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의 이야기만을 흥미있게 무대적으로 형상하고있다.

토끼 : 꿀꿀아, 너 호박농사를 잘했니?

꿀꿀이 : 내 걱정은 하지도 말아.

토끼 : 그래, 그럼 내가 가꾼 해바라기를 보여줄가?(자기의 밭을 향하여)

해바라기야, 어서 열매를 맺어주렴.(흥겨운 음악속에 해바라기가 우쭐우쭐거리더니 쟁반같은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난다.)

꿀꿀이 : 꽤찮은데, 그럼 내것도 좀 보여줄가.(자기의 밭을 향하여)

내가 가꾼 호박아, 어서어서 달고도 큰 호박을 한아름 안겨주렴.(느릿느릿한 음악속에 호박이 맥없이 자라다가 주먹만 한 호박이 한알 툭 떨어진다.)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두 인물의 이야기를 동심적인 대사와 환상의 수법으로 비약시키고 함축하여 재미있게 보여주고있다.

동화극문학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는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무대적인 시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희곡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내는 소설문학이나 영화문학과 달리 현재로부터 과거에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로 자유롭게 비약시키면서 다양하게 그릴수 없다.

동화극문학도 희곡의 한 형태로서 이러한 시공간적제약성을 가지고있지만 과장과 환상이라는 특수한 형상수법의 활용으로 창작에서 이러한 제약성을 일정하게 극복해나가고 있다.

동화극문학 《열두달의 집》은 설달그믐날 어머니로부터 자기들의 잘못을 일기에 쓰라는 과업을 받은 두 학생이 홀리간 한해동안의 자기들의 생활속에서 교훈을 찾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잘못을 찾지 못하자 묵은해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들의 지나간 생활을 펼쳐보여준다.

철이 :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걸 뭐.

용이 : 나두, 잘못된게 생각나지 않아 그래.

△ 두 아이 명칭하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있다.

용이 : 앵이, 열두달을 몽땅 붙잡아오면 좋겠네.

철이 : 열두달을? 야! 열두달이 어디 있니?

△ 묵은해할아버지 등장한다.

묵은해할아버지 : 허허, 너희들이 그렇게도 제 잘못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열두달을 불러주지.

애, 열두달들아, 어서 차례로 나와 이 애들의 잘못을 보여줘라.

이렇게 되어 열두달들이 차례로 나와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보안원아저씨에게 단속되어 가는 용이의 모습과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뿔차기하는 운동장만 바라보다가 망신당하는 철이의 모습들을 차례로 펼쳐보여준다.

이러한 환상적인 회상식구성형식은 동화극문학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으로서 동화극적인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어주고 극적전인력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물론 동화극문학이 이러한 수법을 쓴다고 하여 영화문학이나 동화에서처럼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리용할수 있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무대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희곡의 다른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놓고볼 때 이러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은 동화극문학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는 개성적인 동화극적성격창조에도 환상의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동화극문학의 성격형상창조에서 환상의 수법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인물들의 기질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많이 리용된다. 동화극문학 《큰 주먹》에서는 외동이와 그의 동무들의 성격적특징을 환상의 수법으로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어머니 파랑새의 도움으

로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원쑤를 때려부실 장수힘을 키운 외동이와 그의 동무들이 커다란 바위들을 주먹으로 내려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깨어져나간다. 이것은 지주놈들과 맞서 싸울 힘을 키워낸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환상의 수법으로 보여준 실례로 된다.

환상의 수법을 동화극문학에서 성격창조의 수법에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물의 성격적특징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과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비본질적이며 부차적인것을 과장하거나 환경과 맞지 않게 과장하면 동화극의 성격형상에서 생동성을 잃고 오히려 우습강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예술적환상은 이야기를 보다 흥미있고 생동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형상수법인것만큼 언제나 생활적진실에 토대하여야 한다.

우에서 실례로 든 동화극문학 《큰 주먹》에서 커다란 바위도 깨버리는 외동이와 그의 동무들의 성격형상은 그것이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뭉친 힘이 제일 세다는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생동하고도 방불하게 될수 있었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는 대사형상에도 환상의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의인화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야기줄거리가 환상과 과장으로 일관되고있는 동화극문학에서 대사가 환상적이며 과장된 표현으로 씌여지는것은 필수적이다.

○ 정말 그렇네. 자네 코고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내가 있는 안주땅이 다 흔들렸단니까.(동화극문학 《잠을 깨요》중에서)

○ 으흐흐, 불만 대면 번개처럼 내닫는 불길선. 이거면 저 야장간이 흔적마저 없어지리라.(동화극문학 《선사받은 뿔피리》중에서)

실례에서 코고는 소리에 안주땅이 다 흔들렸다는것이라든가, 불길선으로 꽃동산의 야장간을 없애버리겠다는 승냥이놈의 대사는 환상의 수법으로 씌여졌다.

이 수법을 쓰는데서는 표현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수법을 쓰는것도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자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진실하지 못하면 역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이처럼 환상의 수법이 이야기줄거리조직과 성격형상, 대사형상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전 과정에 일관하게 작용하는것은 일반 희곡에서 찾아볼수 없는 동화극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수법은 다음으로 무대우에서 직접 펼쳐지는것을 전제로 하여 창작되는 무대적환상으로 펼쳐질수 있게 활용하여야 한다.

동화에서는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현실세계와 환상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양한 환상세계를 펼칠수 있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에서는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제한된 무대적조건에서 의인화된 인물들과 환상적인 인물들에 의하여 펼쳐보인다.

무대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와 연출가들에게 형상방도가 묘연한 환상적인 형상을 창조할것을 제시한다면 그러한 동화극문학은 동화극으로서는 물론 동화극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동화극의 환상적형상을 무대적조건에 맞는 직관적인 예술적형상으로 창조하자면 극문학에서 물질적수단 즉 새로운 무대장치와 소도구들을 부단히 발견하여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무대연출가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작가가 문학단계에서부터 예상하고 그것이 곧 작품의 극적인 견인력을 담보할수 있는 형상수단으로 되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작가는 현대적인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대적형상수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가지고 그 형상적기능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환상의 폭을 넓히고 동화극의 형상적화폭을 립체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동화극 《뿔피리소리》에서는 창고자물쇠를 부엉이자물쇠로 설치하고 부엉이눈에서 시퍼런 불줄기가 번쩍번쩍 비쳐나오게 하였으며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소리열쇠로 하고 뿔나팔이 울리면 열리면서 창고문에 매달려있던 큰 부엉이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게 하였다.

동화극 《풍년장훈》에서는 영사막으로 풍년벌 장기관을 펼쳐놓고 풍년벼이삭이 이상기 후두령을 이기는 절정장면에서 록음효과로 《풍년장훈》소리가 크게 울리게 함으로써 온 장내를 뒤흔들게 하였다.

이렇게 우의 동화극들에서는 새롭게 착상된 장치와 소도구들로 동화극의 흥미를 돋굴 수 있게 하였다.

동화극문학창작가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에 대한 파악을 깊이있게 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환상의 폭을 대담하게 넓혀나갈수 있는 형상수법들을 최대한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은 환상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세계에 맞게 희한한 환상의 세계를 펼칠수 있는 동화극문학을 더 많이 창조해나감으로써 학생소년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역군들로 훌륭히 키워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동화극문학, 환상수법